

지역 소식통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로고송 공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9월 6일과 7일 개최되는 '제2회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앞두고 새롭게 제작된 '새로보미송 II'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로고송은 김제 출신 김성재 교수(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 사진)의 재능기부로 탄생했다. 김 교수는 김제중학교와 김제덕안고를 졸업한 지역 출신으로, 지난해 처음 발표한 '새로보미송 I'에 이어 올해도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특히 모든 세대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선율로 구성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생명사랑 로고송 댄스 챌린지 공모전 진행

김제시는 2024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로고송 댄스 챌린지 공모전'을 31일까지 SNS(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실시 한다고 밝혔다.

시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 댄스 경연대회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자들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로고송 '마음의 창문을 열고 사랑 가득'에 맞춰 댄스영상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 하면 된다. 심사는 △조희수, △댄스마스터, △표현전달력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상위 4팀을 선정해 오는 9월 10일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선정된 4팀은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참가 선착순 100명에게도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로고송 다운 및 참여방법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스타그램(@gimjemind) 및 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gimjemind.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 개최

완주 우석대 W-sky23서 열려... 전국 9개 혁신도시 긴 11개 기초단체 참여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회장 유희태 완주군수) 2024년도 정례회가 지난 14일 완주군 우석대 23층 전담대 W-sky23에서 열렸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완주군을 포함해 전국 9개 혁신도시를 낀 11개 기초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한 안건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안건은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 촉구를 위한 제안 △혁신도시 특별지원 규정 신설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플러스터 용지 금지항목 제정도 요청 등이다.

이 안건들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기관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건의 의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11개 시·군·구 단체장은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추진 방향을 최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를 공식화하기도 해 혁신도시와 비 혁신도시 간 갈등 구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며 "정부의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유희태 완주군수는 회장직을 조병옥 음성군수에 게 넘겼다. 부회장으로는 원주시, 김천시, 김제시가 각각 맡게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회장직을 수행

하는 동안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도움을 주신 회원도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비 지원 확대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차기 임원단에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순국선열에 대한 정신 가슴에 새길 것"

완주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완주군이 15일 오전 9시 경천면의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및 유익식 군의회 의장, 도, 군의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화와 분향, 기념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일문구사의 후손으로 누구보다 애국심이 투철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광복절은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순국선열에 대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보훈가족의 예우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뜻깊은 행사에서 만세삼창을 선창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1945년 그날로 돌아가 선열들의 베푼 심정을 느꼈다"며 "앞



으로 우리 군의원들도 순국선열의 강한 의지를 본받아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국보훈의 도시 완주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1,650여 명에게 호국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가족 위안행사, 호국순례사업, 현충시설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독립유공자 유족과 기념행사·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

14일 진행된 광복절 기념행사는 '모 아가는 민족의 염원, 만들어 가는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대형 태극기에 독립유공자 유족과 김제시민이

다같이 손바닥 도장을 찍는 행사를 진행,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다 목숨을 치르거나 사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후손들로 건국훈장을 포상받은 김형규, 건국포장을 포상받은 정한호, 유종규, 대통령 표창을 포상받은 양성도, 오연길, 이규연의 후손이며, 현재 김제에는 유족 여덟 분이 거주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서면 에코르 2단지 분양전환' 간담회 개최

높은 분양가에 주민들 반발...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 이서 에코르 2단지 분양전환 중재 나서

완주군의회가 이서면 혁신도시 에코르2단지(10년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분양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익식 의장을 비롯해 이순덕 운영위원장, 집행부 김재운 공동주택팀장, 임차인대표회의 송승규 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최정웅 위원장·우현숙 부위원장, 현소정·한정희 하자팀장, 분양추진위원회 박병선 위원장 외 에코르2단지 주민들 및 전북개발공사 임태이 주거복지차장, 유수지 주거복지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에코르2단지 주민들은 주거지역 인근 공장과 악취로 인한 정주여건 악화, 열악한 교육 및 교통 환경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하향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위법에 따라 5년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조정이 어렵다는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관교와 대구 사례를 들어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분양 전환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분양가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추진위원회 구성 시 4명의 임차인 대표 중 3명이 사퇴하고 1인이 추진한 것은 무효라고 성토했다.

이에 공사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과반수 동의 시 재검정을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보수와 관련해 매년 보수를 성실히 진행해왔으며, 하자 보수가 필요하면 접수 후 진행할 수 있다는 공사 측은 답변을 내놨다.

에코르2단지 주민들은 추후 전문가와 함께 분쟁위원회를 다시 개최되길 강력히 요구했으며, 공사 측은 이번 간담회 내용을 검토한 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순덕 위원장은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길 바라며, 기반 시설 등을 감안해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 부분이 늘어날 수 있으니, 하자보수를 완벽히 마친 후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절차보다는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익식 의장은 이미 확고한 공사의 입장을 꼬집으며 "오늘 자리 이후로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에코르2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번 간담회를 요청했는지 공사 측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져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될 것"

김제 렌더링 업체 5곳, 김제사랑장학금 2500만원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지난 14일, 관내 렌더링 업체 5개소로부터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5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 정신을 실천하고 김제의 밝은 미래를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주목받고 있다.

기탁에 참여한 업체는 한국방제(주), ㈜우리축산방역, 우성축산, 그린맥스, JS그린 등 5개 렌더링 업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23년 고병원성 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김제시 가금농가의 고통에 공감하며, 김제시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뜻을 모았다.



탁금과 함께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또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